

# '황룡강변 아파트' 어설픈 해명에 더 커진 비난 목소리

### 광주시 난개발 하며 "난개발 방지 목적"...사업자 공모 과정도 불투명 연관부서 협의·시의회 보고도 패싱...이시장 "회색도시 안 되게 할 것"

광주시가 평동산업단지과 황룡강 장륙습지 사이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2020년 11월 16일자 1면)과 관련해 광주시 사업 추진부서가 관련 부서들과의 사전 업무협의 조차 '패싱'하고, 시의회에도 제대로 보고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자본을 끌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를 수용해 대규모 아파트를 짓도록 하고, 그 수익금으로 전략산업 시설을 얻겠다는 광주시의 수준 낮은 개발 행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산구 지족동 준공

면적 139만5553㎡에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 등 지역 전략 산업 거점으로 직장과 주거가 함께 있는 '직주 공간'을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달 20일 민간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 해당 부지는 농업지역이었으나, 1991년 평동산단 조성 당시 개발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1998년 개발 이익을 누리지 못한 주민 민원해소를 위해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그러나 오히려 폐기물 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민원이 가중되는 상황이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난개발을 없애 해당 지역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지역 전략산업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의견이 나온다. 광주시는 이미 공모 1년여 전인 2019년 9월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개발을 염두에 둔 사전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해당 지역은 국가습지 지정을 추진중인 장륙습지와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아파트 개발이 오히려 난개발로 이어져 장륙습지의 국가습지 지정 등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업추진 부서에서 공모를 하기에 앞서 도시재생국, 환경생태국, 문화관광실 등 관련 실국과 내부 조율이나 협의 조차하지 않은 점도 각종 의혹을 낳고 있다. 시의회 역시 광주시 산하 공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계획인데도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는 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장기 민원 해결을 위해 관련 부서들이 모여 협의조정회의를 거쳤으며, 투자유치와 산단타입이 맞기로 했다"며 "이 자체가 협의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광주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들어갈 정도로 대형개발 사업인데 아무리 공모단계라고 하지만, 관련 부서 모두가 광주일보 보도를 통해 처음 접한 것은 말이 안된다. 업무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업을 놓고 아파트 건설업체 간 물밑경쟁도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쪽으로 1km 거리에 KTX 송정역, 서쪽으로 빛그린 국가산단과 서해안

고속도로, 북쪽으로는 황룡강을 두고 있어 아파트를 짓기에 최적지라는 말도 나온다. 실제 지역 한 아파트 건설업체와 대기업 계열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뤄 사업공모를 진행하다 무산되기도 했으며, 또 다른 건설업체들도 아파트 건설을 염두에 두고 공모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산업시설 유지는 뒷전이고, 아파트 개발만 부각되는 꼴이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분산적으로 하다 보면 생기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효율적으로 개발하자는 차원에서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 것"이라며 "아파트 위주의 회색 도시는 안 된다는 평소 소신대로 아파트를 대규모로 지어 그 수익으로 사업을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1988년 설립 후 글로벌 항공사 도약 경영실패·2009년 금융위기로 휘청

1988년 설립 이후 국내 부동의 2위 대형항공사로 자리를 지켰던 아시아나항공이 30여 년 만에 경쟁사였던 대한항공에 통합된다. 대한항공이 1조8000억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1위 대한항공과 2위 아시아나항공이 하나로 뭉쳐지게 된 것이다. 1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내년 초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 자회사로 운영한 뒤 1~2년 이내 흡수·통합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2년부터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988년 2월 창립한 아시아나항공은 복수 민항사 체제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함께 고속 성장했다. 해외여행 때 대한항공 외 다른 항공사를 탈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넓혀줬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12월 B737-400 항공기를 처음으로 도입한 뒤 서울-부산, 서울-광주 노선을 시작으로 점차 국내선 운항을 확대했다. 1990년에는 서울-도쿄 노선을 취항하며 본격적인 국제선 운항 항공사로 발돋움했고, 1991년 박삼구 당시 금호기업 사장의 아시아나항공 사장 취임과 함께 서울-미국 로스앤젤레스 노선까지 취항했다. 2003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 항공동맹체인 '스타얼라이언스'에 가입하며 글로벌 항공사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세계적 여행 전문 잡지로부터 '올해의 항공사' 상을 받으며 차별화된 서비스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모기업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무리한 사세 확장으로 아시아나항공도 위기를 맞게 됐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2006년 대우건설, 2008년 대한통운을 잇달아 인수했지만 충분한 자금 없이 무리하게 계열사를 인수하면서 위기를 자초했다. 그룹의 차입금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데 이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타치면서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아시아나항공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009년 워크아웃(기업개선택업)을 신청하면서 시작된 아시아나항공의 채권단 관리는 이후 4년간 이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구조조정 방식의 일종인 자율협약 절차를 밟았다. 2014년 자율협약 종료 이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금호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며 자금 지원을 이어오면서 위기에서 벗어 나지 못했다. 박 전 회장이 작년 3월 그룹내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부터 추진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인수 작업도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 불황으로 결국 올해 9월 무산됐다. 현산의 인수 무산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 관리 체제 아래 놓였고, 3조원 가량의 정부 지원도 받았다. 채권단은 지난해와 올해 아시아나항공에 모두 3조 3천억원의 지원을 했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자금 2천400억원도 추가 지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연합뉴스



16일 광주시청 앞에서 나주 열병합발전소 반대 대책위가 차량 220대를 동원, '열병합발전소 가동반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나주 SRF 반대 단체 "광주 쓰레기는 광주가 책임져라"

### 광주시청 앞서 규탄대회 이용섭 시장 "나주시 내부 문제"

나주 고형폐기물 연료(SRF) 열병합발전소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16일 "광주 쓰레기는 광주가 책임지라"며 광주시를 규탄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노조협의회와 SRF 저지 나주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광주 쓰레기 문제 해결 없이는 나주 쓰레기 소각장 협상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광주 쓰레기를 나주에서 소각하는 문제가 나주시민의 저항에 부딪히자

광주시는 이 문제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민간 업체 간의 계약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며 "광주시가 해당 업체를 지원·감독하는 실소유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심 없는 면피 행정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시는 파행되고 있는 거버넌스에 참여해 광주 쓰레기 반입 시도도 인한 매물 비용을 광주가 어떻게 같이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며 "광주 정신을 살리고 광주와 나주의 우정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포스코건설 주도로 설립된 민간 업체와 난방공사가 맺은 합법적인 계약에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출입 기자와 간담회에서 "SRF 열병합발전소는 나주 내부의 문제"라고 일축한 뒤, "광주에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인허가권자인 나주시와 전남도, 운영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 당시 관장한 산자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시장은 또 "일차적으로 난방공사가 가동하는 나 안 하느냐의 문제"라며 "광주시도 2000억원 가까이 손해를 본 피해지역인데, 피해 지역에 와서 (집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난방공사 측은 전남에서 생산된 연료(성형 SRF)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외국에서 수입을 하지 않는 대신 광주시 양과동에서 생산하는 비성형 SRF를 가져다 쓰기로 구매협약을 맺었다고, 나주시는 광주의 비성형 SRF 반입 등을 반대했고 발전소 가동도 중단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별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증식성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